

청소년의 위기 중복 유형 탐색: 서울, 인천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기지원 청소년을 중심으로

김 형 수*

루터대학교

최 한 나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위기 중복 실태를 조사하여 인접한 위기 유형들을 밝혀 위기 청소년 선별 과정의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경험적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 세부유형을 표기한 점검목록을 구성하였다. 서울, 인천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동반자, 위기상담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524명(남자 278명, 여자 246명)이었다.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위기요인 구분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합된 위기요인의 수와 복합율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나타난 위기요인 발생의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후 도출된 좌표에 위치한 개별 위기요인들의 좌표 값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기요인들에 대한 근접성을 확인하고 유형화한 결과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비행관련 위기요인과 비행 무관련 위기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 차원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6가지 위기 유형 군집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위기진행과정에 대한 기존 모델의 단계 내 위기 유형들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모델이 고려하고 있는 앓은 위기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위기 진행 모델을 확장하였다.

주요어 : 위기청소년, 위기 중복 유형, 다차원척도분석, 포지셔닝맵

* 교신저자 : 김형수, 루터대학교 상담학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7번지
Tel : 031-679-2339, E-mail : hskim70@ltu.ac.kr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위기 중복 실태를 조사하여 인접한 위기 유형들을 밝히고 위기 요인별로 횡적인 구분과 심화단계에 따른 종적인 구분을 통합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선별 과정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 지원 시스템의 직접 수혜대상자인 위기청소년에 대해 개념적 수준이 아닌 실제적 수준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청소년의 위기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개입이 높아지면서 많은 자원이 청소년 지원정책에 투입되고 있다. 포괄적인 청소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제안된 실태와 대안에 기초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제(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CYS-net)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청소년안전망 지원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제(CYS-net)란, 위기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의 관점에서 보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구축체계를 수립하여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38개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를 선정하여 CYS-net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국적으로 이 정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정부 지원 시스템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CYS-net의 직접 수혜대상자인 위기청소년은 일련의 개인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 및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

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러한 위기청소년 개념은 미국의 교육수월성 추구를 위한 국가위원회 보고서가 발단이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교육수월성 추구를 위한 국가위원회는 학업 중도 탈락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이봉주 외, 2008). OECD 회원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기청소년 개념 역시 학업부적응 문제를 포함하여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지원법(2005)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선도대상 청소년 중 비행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위기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세부적인 유형 대략 다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로 여기에는 가출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빈곤계층 가정의 청소년, 요보호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여기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포함한다. 셋째, 교육적 선도대상 청소년으로 여기에는 비행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 청소년, 비행 청소년, 범죄 가해 및 피해 청소년, 우울 및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경우는 2007년 각 지역

별 위기청소년 경향 및 CYS-net 지역자원조사를 실시하면서 위기청소년을 크게 4가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그 세부 유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4가지 위기상황은 첫째 개인적 위기상황 둘째, 가족적 위기상황 셋째, 교육적 위기상황 넷째,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른 세부유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에 비해 보다 세분화 되어 있다. 이상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일정한 청소년의 특성이나 처한 환경적인 상황에 대해 붙여진 명칭이며, 청소년들의 적응적 발달을 도울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발달적 자원(development asset)들 중 외적 요인의 핵심이 되는 가족, 친구, 교사, 그리고 사회 기관 등의 실질적 지원이 없거나, 가정·학교 등 보호망을 이탈한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개념화되었다. 한데,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개념 속은 위기청소년의 범주와 하위유형을 단선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청소년들이 입체적으로 혹은 복합된 위기상황을 겪는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위기를 발달적이며 단계적인 것으로 보려는 관점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는 위기청소년에 대해 좀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McWhirter 등(2004)은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 및 가족환경, 사회관계, 스트레스 요인 등의 영향 정도에 따라 최저위기에서 위기행동까지 5단계로 위기 수준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국내 모델의 경우에서도 위기 수준을 위계적 단계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을 어느 특정 집단이라기보다는 위기의 유형, 발달단계, 그리고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호 외, 2005). 구본용(2005)이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위기분류 모델에서 역시 몇 가지 요인을 인접한 위기로 묶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빈곤, 양육방식, 낮은 학업성취기대, 그리고 유해매체 및 환경 등을 함께 묶어 위기 전조 단계로 보고 있다. 가정문제(가족 간 불화, 학대, 부모이혼 및 사망 등)와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문제를 위기 표식 단계로 보았다. 무단결석 및 학교폭력 가해, 낮은 학업성취, 자살시도와 성매매 등을 문제 행동 단계로 보았으며 학업중단, 가출, 범죄, 자살 등을 위기 결과 단계로 보았다. 이러한 단계 모형은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상황들을 서로 상관이 높은 인접한 위기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들은 중복하여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위기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일한 특정 요인 보다 위기요인의 누적된 효과가 기능적 손상을 더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Fraser et al., 1999). 따라서 위기 수준이 심화될수록 위기 양태가 복합적이므로 개입과정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한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청소년 위기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틀을 통합하는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위기의 종적인 계열 모델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 위기청소년 지원에서는 횡적인 위기청소년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즉, 위기 요인별 횡적인 구분과 심화단계에 따른 종적인 구분이 통합되지 않고 있다. 위기요인들의 관련성은 개인, 가정, 또래, 학교 등의 각 위기 요인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며 한 위기 요인 내에서도 보다 심각한 하위 위기요인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얼마만큼의 위기중복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통합적 관점 하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 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이봉주 외, 2008). 이 연구에서는 위기선별 척도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의 잠재위험요인과 발현위험요인을 구분하여 위기청소년들이 각 요인별 호소 여부를 파악하고 중복되는 위험요인 수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 1598명 중 40.98%가 한 가지 이상의 발현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는 두 가지 위험요인이 중복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발현된 위험요인 수가 많을수록 중복율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발현위험요인 중복을 가운데 가출-학업중단이 80.81%로 가장 많았으며, 세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중에서는 가출-학업중단-인터넷중독이 3.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주 등(2008)의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개념이 실천적 유용성 측면에서 확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복 위기 수를 넓혀 잡을수록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요 위기 항목별로 중복 비율이 높은 4개의 항목까지만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개별 위기요인 내 항목들의 위기 단계와 타 위기 요인과의 관련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위기지원체계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세부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체계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CYS-net 서비스 수혜자의 위기복합을 역시 세부유형에 기초해 조사될 필요가 있다. 위기상황은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위기청소년 모형들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계 및 인접 위기 상황에 대한 모델에 대한 통합적 관점과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나 경험적 확증이 충분하지 않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험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청소년들이 지닌 위기 상황에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가능한 서비스들을 스크리닝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스크리닝 방식은 위험요소, 그리고 위기 및 문제영역을 두 개의 스크리닝 척도로 나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스크리닝 과정은 인지되지 못한 서비스가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위기 항목으로 밝혀진 문제가 어떤 문제와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위기 상황들의 중복지원 실태에 기초하여 인접 위기 유형들을 묶어 위기 구분 및 위계 모형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위기 유형들이 서로 두세 가지 혹은 그 이상 중복되는 상황을 기술적 수준에서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는 위기 상황들의 근접성 파악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전체적인 조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기 항목들 간의 세부적인 관련 정도를 일일이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위기 상황의 군집화 정보와 이를 통한 인접 위기 유형화를 통해 위기 구분 및 계열화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위기 상황별로 요구 가능한 서비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위기로인 구분에 따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CYS-Net 서비스에 의뢰된 청소년의 위기중복 유형을 조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위기청소년 세부유형을 표기한 점검목록을 구성하였으며,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동반자, 위기상담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각 기관의 관계자 및 실무자들의 동의를 얻어 CYS-Net 사업을 통해 위기상담사례와 청소년동반자사례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초기 위기 스크리닝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 별 복합지원 항목을 점검목록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수거된 사례는 총 524 사례였으며, 이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9세에서 25세까지였으며, 평균나이는 16.01(SD=1.763)이었으며, 남자가 278명(53.1%), 여자가 246명(46.9%)이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 단위의 청

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기 스크리닝 척도의 4개의 영역, 26가지 하위 위험요인을 사용하였다. 각 위기영역별 하위 위험요인은 표 1과 같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위기 복합률과 위기로인 군집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위기로인 구분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합된 위기로인의 수와 복합율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나타난 위기로인 발생의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차원척도분석 결과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척도분석은 각 개체 간의 비유사성/유사성에 기초하여 상대적 거리를 통해 공간상에 각 개체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제시해주는 통계적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하여 각 위기로인들 간의 중복 빈도에 기초한 위기로인들 간의 상대적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위기로인 간의 중복이 많을수록 상대적 거리는 가까워지며, 중복이 적을수록 위기로인들 간의 거리는 작아진다.

표 1. 영역별 세부 위험요인

위기영역	위기로인
개인적 위기영역	가출, 범죄,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고위험사용자군), 성매매·성폭력, 혼인, 미혼모, 교통사고 피해, 자살, 정신질환, 질병
가족적 위기영역	빈곤,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폭력, 시설입소
교육적 위기영역	학업중단, 학교폭력가해, 학교폭력피해
사회적 위기영역	실업, 북한이탈(새터민), 국제결혼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외국인 청소년근로자, 한민족(조선족)

결 과

위기요인의 빈도

위기영역별 발생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개인영역, 가족영역, 교육영역, 사회영역이 각각 741건, 387건, 238건, 14건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위기요인의 경우 가출이 213건, 한부모 가정이 167건, 흡연이 16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기영역별 위기요인의 발생빈도는 표 2와 같다.

한 명의 청소년에게 나타난 위기요인의 중복 빈도를 살펴본 결과, 하위 위기 요인들 중에서 2개 이상의 중복이 나타난 경우가 351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에서 54.6%가 위기요인의 중복발생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발생 빈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분포를 살펴 보았을 때, 중복된 하위요인의 발생빈도가 높아질수록 연구대상자의 분포가 줄어들었다. 중복 하위요인의 발생 빈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빈도는 표 3과 같다.

위기요인의 군집화 양상

연구대상에게 나타난 위기요인들의 발생빈도에 따라 위기요인들의 중복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척도분석은 개체들 사이의 비유사성 값을 이용하여 개체들 간의 거리에 기초하여 개체들의 위치를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게 발생한 위기요인들 간의 거리에 기초하여 각 위기요인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6개의 위기요인들에 대한

표 2. 위기영역별 위기요인 빈도

위기영역	위기요인	빈도 (퍼센트)	영역빈도 (퍼센트)
개인적 위기 영역	가출	213(40.6)	741 (53.70)
	범죄	63(12)	
	흡연	165(13.5)	
	음주	115(21.9)	
	인터넷중독	39(7.4)	
	성매매·성폭력	34(6.5)	
	혼인	3(0.6)	
	미혼모	1(0.2)	
	교통사고	6(1.1)	
	자살시도	34(6.5)	
가족적 위기 영역	정신질환	49(9.4)	387 (28.04)
	질병	19(3.6)	
	빈곤	112(21.4)	
	한부모가정	167(31.9)	
	소년소녀가장	18(3.4)	
교육적 위기 영역	가정폭력	68(13.0)	238 (17.25)
	시설입소	22(4.2)	
	학업중단	125(23.9)	
사회적 위기 영역	학폭가해	54(10.3)	14 (0.01)
	학폭피해	59(11.3)	
	실업	7(1.3)	
	새터민	2(0.4)	
	국제결혼	3(0.6)	
	외국인근로자	1(0.2)	
전체	외국인청소년	0	1380
	한민족	1(0.2)	

표 3. 위기요인 중복 빈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분포

위기요인 중복 빈도	빈도(퍼센트)
1개	173(33.0)
2개 중복	121(23.1)
3개 중복	86(16.4)
4개 중복	62(11.8)
5개 중복	29(5.5)
6개 중복	19(3.6)
7개 중복	18(3.4)
8개 중복	8(1.5)
9개 중복	5(1.0)
10개 중복	3(0.6)
전체	524(100)

발생 빈도를 자료로 하여 비유사성 행렬을 도출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에서의 stress 값은 .113이었다. 본 연구의 경우 2차원 개념도를 통해 각 위기요인들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2차원 solution으로 결정하였다. 스트레스 값이 다소 높기는 하나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stress 값은 2차원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척도 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205 - .365)를 충족시킨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6).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2차원 개념도에 나타난 각 하위요인의 좌표 값은 표 4와 같다.

다차원척도 분석의 결과 나타난 각 위기요인들 간의 거리는 비유사성에 기초하므로 표시된 수치가 작을수록 두 위기요인 간의 거리, 즉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각 위기요인 간의 거리는 별첨과 같다. 본 설명에서 두 위

표 4. 위기요인의 2차원 좌표 값

위기요인	1차원	2차원
가출	-.668	-.110
범죄	-.421	.257
흡연	-.829	.034
음주	-.630	.158
인터넷중독	.0578	.728
성매매 · 성폭력	-.633	-.282
혼인	-.339	-.277
미혼모	.494	-.226
교통사고	.657	.247
자살시도	.335	.070
정신질환	.892	-.093
질병	.429	.278
빈곤	-.016	.259
한부모가정	.291	.674
소년소녀가장	-.261	-.751
가정폭력	-.169	.648
시설입소	-.461	-.610
학업중단	-.437	.480
학교폭력가해	-.716	.325
학교폭력피해	.674	-.014
실업	-.040	.635
새터민	.033	-.660
국제결혼자녀	.359	-.607
외국인근로자자녀	.512	-.483
외국인청소년근로자	-.003	-.037
한민족	.368	-.643

기요인은 특정 위기요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별첨에서 제시한 각 위기요인간의 거리는 모든 위기 요인들 간의 조합에 따라

도출된다. 별첨에 제시된 결과는 모든 위기요인들 간의 거리를 고려해서 2차원 해법에서 도출된 상대적 거리이다.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좌표에 위치한 개별 위기요인들의 좌표 값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을 통해 총 6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군집의 수는 분석결과 도출된 덴드로그램에서 3 미만의 거리 값에서 군집의 수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군집 간 위기요인들과 군집 내에 포함된 위기요인들을 검토하여 군집 내에 포함된 위기요인들의 관련성과 군집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6개의 군집에 포함된 위기요인은 표 5와 같다.

군집 내의 하위 위기 상황들을 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4개 청소년위기 상황과 교차하여 살펴본 결과 군집 I은 교육적 위기 상황과 개인적 위기상황을 포함하며, 군집 II는 가족적 위기상황과 사회적 위기 상황을 포함하고, 군집 III은 가족적 위기상황과 개인적 위기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군집 IV는 개인적 위기와 교육적 위기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집 V는 사회적 위기상황을 포함하고, 군집 VI은 가족적 위기상황을 포함하였다.

위기의 횡적 구분에서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위기항목들이 종적인 구분에서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위기의 경우, 군집 I에 포함된 가출, 흡연, 음주 등은 같은 횡적 범주에 속하는 자살, 질병, 정신질환 등과 종적인 위기 구분에서는 다른 범주로 구분이 되고 있다. 가족적 위기의 경우 군집 II에 속한 빈곤과 가정폭력은 군집 III과 VI에 속한 한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청소년과는 다른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 교육적 위기의 경우, 군집 I에 포함된 학업중단과 학교폭력가해는 군집 IV에 포함된 학교폭력피해와는 종적 위기 구분에서 다른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 사회적 위기에 포함된 항목들은 사례수의 제한으로 해석이 제한되거나 군집 II와 군집 V로 구분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지금까지의 제시된 다차원척도분석 결과와 군집분석 결과를 2차원에 시각적으로 나타낸 위기요인들의 유형 군집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제시된 위기요인들의 위치와 군집을 살펴보면, 포지셔닝맵의 좌측에는 비행행동으로 구성된 위기요인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에는 비행무관련 위기요인들이 위치

표 5. 군집별 위기요인

군집	위기요인
군집 I	학업중단, 학교폭력가해, 범죄, 음주, 흡연, 가출, 성*, 혼인*
군집 II	가정폭력, 빈곤, 실업, 외국인청소년*
군집 III	한부모가정, 인터넷중독
군집 IV	정신질환, 학교폭력피해, 자살시도, 질병, 교통사고, 미혼모*
군집 V	외국인근로자자녀*, 국제결혼*, 한민족*, 새터민*
군집 VI	시설입소, 소년소녀가장

* 발생빈도가 1% 미만임.

표 6. 군집별 청소년위기상황 요인

위기구분		군집					
위기상황	세부영역	I	II	III	IV	V	VI
개인적 위기상황	가출	●					
	범죄	●					
	흡연	●					
	음주	●					
	인터넷 중독(고위험사용자군)			●			
	성매매·성폭력	●*					
	혼인	●*					
	미혼모					●*	
	교통사고 피해					●	
	자살					●	
	정신질환					●	
	질병					●	
가족적 위기상황	빈곤		●				
	한부모 가정			●			
	소년소녀가정						●
	가정폭력		●				
	시설입소						●
교육적 위기상황	학업중단	●					
	학교폭력가해	●					
	학교폭력피해					●	
사회적 위기상황	실업		●				
	북한이탈(새터민)						●*
	국제결혼자녀						●*
	외국인근로자 자녀						●*
	외국인 청소년근로자		●*				
	한민족(조선족)						●*

* 발생빈도가 1% 미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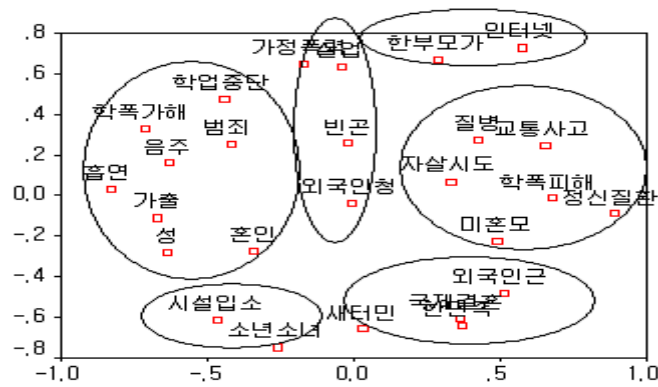


그림 1. 위기요인의 포지셔닝맵

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볼 때, 맵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위기요인들은 범법, 학업비행, 지위 비행, 성비행과 이에 따른 교정시설 입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우측의 경우 직접 비행과는 관련이 적어보이는 위기 요인들이 분포되어 있다. 군집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군집 I의 경우, 비행 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위기요인과 교육적 위기영역 중에서 학업중단, 학교폭력가해가 포함되었다. 즉, 비행 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위기요인들은 각 요인들 간의 중복양상이 높으며, 또한 학업중단과 학교폭력가해 요인들은 개인적 위기요인 중에서 비행 행동과 중복양상이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군집 II의 경우, 가족적 위기영역 중에서 가정폭력과 빈곤, 그리고 개인적 위기요인 중 실업이 포함되었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 실업 요인은 상대적 발생 빈도가 전체 위기요인 발생 빈도의 1.3%에 해당하는 적은 빈도를 보이므로 군집 II에 포함된 위기요인은 주로 가족적 위기요인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군집 III의 경우 가족적 위기영역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 포함되었으며, 개인적 위기영역 중에서 인터넷 중독이 포함되었다. 군집 IV는 개인적 위기영역 중에서 정신질환, 자살시도,

미혼모, 교통사고가 포함되었으며, 교육적 위기영역 중에서 학교폭력피해가 포함되었다. 또한 이들 위기요인들 중에서 미혼모와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해석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폭력, 정신질환, 자살시도 요인을 주된 구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군집 V는 외국인근로자자녀, 국제결혼자녀, 한민족, 새터민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인들은 모두 사회적 위기영역에 해당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군집 V에 포함된 위기요인들은 모두 발생 빈도가 1% 미만이다. 군집 VI은 가족적 위기영역 중에서 시설입소와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되었다. 즉 군집 VI가족적 위기영역 중 부모의 양육 부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들의 위기 중복 실태를 조사하여 인접한 위기 유형들을 밝히고 위기청소년 스크리닝 및 개입 과정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위기청소년 지원에서 위기 구분은 황적

인 범주화에만 기초하며, 위기과정에 대한 복합 위계적 모델의 경우 복합된 위기 상황들에 대한 경험적 타당화 과정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의 종적 구분과 횡적 구분을 경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위기청소년들의 지원 실태에 기초하여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위기상황의 복합성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인접한 위기 상황들을 묶어 유형화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위기유형의 구분 및 계열적 모델과 비교하였다.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위기요인들에 대한 근접성을 확인하고 유형화한 결과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비행관련 위기요인과 비행무 관련 위기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차원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6가지 위기 유형 군집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유형화는 크게 두 가지를 결과로 요약된다. 첫째, 위기의 횡적 구분에서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위기항목들이 종적인 구분에서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위기의 심화단계 면에서 서로 구분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계열적 위기 유형 범주화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단계별 위기분류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심화과정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접한 위기 요인들을 군집화하고 이를 다시 포지셔닝맵으로 시각화하여 살펴본 결과 군집화된 위기 유형들은 기존의 위기청소년 지원모델의 단계 내 위기유형들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위기청소년 지원모델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위기 진행과정을 크게 4단계 즉, 위기 전조, 위기 표식, 문제 행동, 위기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계는 가정, 학교, 거주 지역의 환경적 위협에서 점차 상황적 위기 및 발달적 위기, 부정적 단기결과 생성, 그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장기 결과의 양상에 까지 이르는 위계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군집 I은 교육적 위기 상황과 개인적 위기상황으로서 학업중단, 학교폭력가해, 범죄, 음주, 흡연, 가출, 성매매·성폭력, 혼인을 포함하였으며, 위기과정 모델 상으로는 문제행동 단계의 위기상황 및 행동을 포함하였다. 군집 II는 가족적 위기상황과 사회적 위기 상황으로서 가정폭력, 빈곤, 외국인청소년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위기과정 모델 상으로는 위기 전조와 위기 표식 단계에 해당하는 가정환경 및 문제가 인접 위기로 나타났다. 군집 III은 가족적 위기상황과 개인적 위기상황으로서 한부모 가정, 인터넷 중독(유해매체 노출 가능성)을 포함하였으며 위기과정 모델 상으로는 위기 전조와 위기 표식 단계에 해당하는 가정환경 및 문제가 인접 위기로 나타났다. 군집 IV는 개인적 위기와 교육적 위기상황으로서 정신질환, 학교폭력피해, 자살시도, 질병, 교통사고, 미혼모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위기과정 모델 상으로는 문제행동 단계의 위기상황 및 행동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인접 위기로 나타났다. 군집 V는 사회적 위기상황으로서 외국인근로자자녀, 국제결혼, 한민족, 새터민 등을 포함하였다. 기존의 위기과정 모델 상에는 이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상 가족 환경 및 문제와 관련한 위협 요인을 포함하는 위기 전조 및 표식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집 VI는 가족적 위기상황으로서 시설입소,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위기 표식 단계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위기과정모델을 군집화 된 위기 유형과 교차

하여 보면, 군집 V는 주로 위기전조단계에 그리고 군집 II, III, VI는 위기 표시 단계에 주로 속하며, 군집 IV는 문제 행동 단계에 그리고 군집 I은 위기결과 단계에 주로 속하는 문제들로 유형화되었다. 그러나 군집화 된 위기 유형 가운데 군집 I, III, IV는 모두 위계모델의 전 단계와 다음 단계의 항목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위계적 모델에서는 단계적 과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위계적 모델의 각 단계가 이행적 상황에서 중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형화된 인접 위기들은 크게 비행관련 위기와 비행 무관련 위기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군집 I, II, III, IV, VI에 해당하는 위기 요인들은 교육적 위기영역과 가족적 위기영역에 속한다. 이들 위기는 비행관련 위기와 비행 무관련 위기와 중복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군집 I이 주로 포함된 교육적 위기영역 중에서 학업중단과 학교폭력 위기는 비행관련 위기와 군집 IV에 속한 학교폭력피해는 비행 무관련 위기와 중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적 위기영역의 경우 군집 III에 속한 한 부모 가정은 비행 무관련 위기와 중복이 높은 반면, 군집 VI에 속한 시설입소와 소년소녀 가장은 비행관련 위기와 중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유무와 학교부적응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Rigby & Slee, 1991; 정지민, 1998). 군집 I에 속하며 교육적 위기영역에 포함되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범법행위 청소년들의 경우 비행관련 축에 더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공격성 성향과 이러한 성향이 비행관련 위기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고하는 선행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한종철, 김인경, 2000). 비행 무관련 위기를 살펴볼 때, 군집 IV에 속하는 학교폭력 피해, 정신질환, 자살시도 등은 서로 중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 등 심리적 부응이 나타나는 경우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부응이 학교폭력 피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01)가 조사한 학교폭력 피해 집단의 정신병리 조사 연구에 의하면, 정신병리가 있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 중에서 34.3%는 학교폭력 이전부터 정신병리가 있었으며, 65.7%는 학교폭력 노출 후 정신병리가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심리적 부응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학교폭력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피해경험을 통해 기존 증상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없었던 학생에게도 심리적 부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요인은 자살시도와도 중복빈도에 기초한 상대적 거리가 가깝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개입에서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의 중복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위기영역을 개인, 가족, 학교, 사회적 위기 영역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포지셔닝 맵에 기초해 볼 때, 위기 중복 실태는 비행 관련 요인과 비행 무관련 요인의 차원으로 재구성되어 이해될 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개인적 위기 요인이라도 음주, 흡연, 범위, 가출, 성매매·성폭력 등은 비행 관련 요인들로서 서로 보다 인접한 반면, 질병, 교통사고, 자살시도, 정신질환과 같은 개인 위기 요인은 비행 무관론 요인으로서 서로 보다 인접하다. 그리고 학교 폭력 가해 및 학업 중단과 같은 교육 위기 요인은 역시 비행 관련 요인으로 비행 무관론 요인인 학교 폭력 피해에 비해서로 더 인접하다. 이상의 내용은 위기진행과정 모델에서 상위 단계 즉, 문제행동과 위기 결과 단계에 위치한 개인 및 교육적 위기 요인들이 비행 관련 유무를 고려할 때 관련 위기의 중복 가능성을 보다 잘 예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행 관련 유무의 차원은 위기청소년 지원 측면에서도 지원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식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 정도가 많을수록 지원 서비스의 양과 빈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구본용, 2005; 이창호 외, 2005). 즉 비행관련 차원에 가까운 군집들이 비행 무관론 차원에 가까운 군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지원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 실태와 분석결과를 교차하여 볼 때, 비행과 일탈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더 끌뿐만 아니라 지원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식 차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선 밝힌 바와 같이 군집 III과 IV에 속하는 일부 문제들은 위기진행과정상 다음 단계의 심화된 위기 단계문제를 함께 지니고 있거나 이행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군집 III에 속하는 인터넷 중독 문제는 비행 무관론 위기영역과 높은 중복을 보이고 있어 비행 및 일탈 행동 보다 심리적 부적응과 더 상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과 심리적 부적응

간의 상관을 밝히고 있는 연구내용과 일치한다(정기선, 2000). 심리적 부적응 문제는 군집 IV의 정신질환으로 이행 될 여지가 큰데 이럴 경우 위기 이행 과정의 상위단계로 전이가 용이하다. 위기지원체계 설립의 목적에는 위기 심화를 막고 예방하는 취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행 및 일탈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위기영역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지원서비스 중복실태에 기초하여 위기 중복 유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군집화 된 인접 위기 유형은 위기청소년 스크리닝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인접 위기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모델이 고려하고 있는 않은 위기 항목들을 기존 모델에 통합함으로써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국제결혼자녀, 새터민청소년, 외국인근로자녀, 한민족 등의 경우, 분석 사례에서 1% 미만으로 보고되고는 있으나 이는 모집단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과 경인지역의 경우 정부의 이주정책이나 지역 이점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의 위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기 이행의 하위 단계에 이를 포함시키고 모델을 확장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율에 기초하여 높고 낮은 정도에 따른 항목 간의 나열보다는 항목들에 대한 조망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위기 항목들 간의 세부적인 관련 정도를 일일이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연구에 포함된 사례 중 부족한 위기 유형들의 경우 군집화에 포함시켰

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 경인지역의 CYS-Net 지원 서비스 실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정부에서는 CYS-Net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지역 및 사례수를 확대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선행 연구에서는 위기 상황에 반응하는 위기청소년들 공통된 심리적 특성으로 낮은 도덕성과 높은 스트레스 수준, 높은 사회성 효능감과 낮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등을 보고하고 있으나(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주영아, 김동일, 2006), 위기의 개념은 환경적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위기의 양상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구분용 (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 지역사회위기청소년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79-80.
-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일탈 행동 무경험 집단과 경험집단의 환경, 심리, 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 13(2), 201-129.
- 보건복지부 (2001). 의료기관을 방문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리 조사. 보건복지부
-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유순덕 (2008). 위기청소년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창호, 김택호, 정찬석, 박재연 (2005). 특별지원청소년 지원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정기선 (2000). 청소년 인터넷 사용의 심리사회적 영향. *인터넷과 청소년 학술 심포지움*. 청소년보호위원회
- 정지민 (1998). 학교폭력 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영아, 김동일 (200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이용자 특성분석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 복지지원법*.
- Fraser, M. W., Richman, J. M., Galinsky, M. J.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Social Work Research*, 23(3), 131-143.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55-171.
- Kane, M., & Trochim, W. (2006).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California.
- McWhirter, J., McWhirter, B., McWhirter, E., & McWhirter, R.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elmont. CA: Brooks/Cole-Thompson Learning.
- Rigby, K., & Slee, P. K. (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5), 615-627.

원 고 접 수 일 : 2008. 9.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9. 4. 8
게 재 결 정 일 : 2009. 5. 16

An Exploratory Study on Multiple Crisis Patterns among Adolescence

Hyoung-Soo Kim

Luther University

Hanna Choi

Sungsan Hyo Graduate School

This study explored the multiple crisis occurrences among adolescences and identified the adjacent crisis factor to each crisis factor in order to advance crisis intervention. 524 adolescence cases(male: 278, female: 246) from Youth Counseling Support Centers in Seoul and Incheon were analyzed. They had received either youth companion(YC) services or crisis counseling. The number and the rate of multiple crisis occurrences were examined according to counselors' crisis screening check-lists which were composed of 26 crisis factor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MDS) and clustering analysis and a positioning map illustrating distance among 26 crisis factors was elicited. The primary dimension was identified as delinquency related crisis vs. delinquency not related crisis. Crisis factors were clustered into 6 groups.

Key words : youth at risk, multiple crisis pattern,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positioning map

별첨. 위기요인 간 거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a																											
2	.44	a																										
3	.22	.46	a																									
4	.27	.23	.23	a																								
5	1.50	1.11	1.57	1.34	a																							
6	.18	.58	.37	.44	1.58	a																						
7	.37	.54	.38	.52	1.36	.20	a																					
8	1.17	1.03	1.33	1.19	.96	1.13	.83	a																				
9	1.37	1.08	1.5	1.20	.49	1.30	1.13	.50	a																			
10	1.02	.78	1.16	.97	.70	1.03	.76	.34	.37	a																		
11	1.56	1.36	1.73	1.54	.88	1.54	1.23	.42	.41	.58	a																	
12	1.16	.85	1.28	1.07	.48	1.20	.95	.51	.23	.23	.50	a																
13	.75	.41	.84	.62	.76	.82	.63	.70	.67	.40	.97	.45	a															
14	1.24	.83	1.20	1.06	.29	1.33	1.14	.92	.56	.60	.97	.42	.52	a														
15	.76	1.02	.97	.98	1.70	.59	.48	.92	1.36	1.01	1.33	1.24	1.04	1.53	a													
16	.91	.47	.90	.67	.75	1.04	.94	1.10	.92	.77	1.20	.70	.42	.46	1.40	a												
17	.54	.87	.72	.79	1.69	.37	.36	1.03	1.41	1.03	1.45	1.26	.98	1.40	.25	1.30	a											
18	.63	.22	.59	.59	1.05	.79	.76	1.17	1.12	.87	1.45	.89	.48	.75	1.24	.32	1.09	a										
19	.44	.30	.31	.31	1.36	.61	.71	1.33	1.38	1.08	1.66	1.15	.70	1.07	1.17	.64	.97	.32	a									
20	1.33	1.13	1.50	1.30	.75	1.33	1.03	.28	.26	.35	.23	.38	.74	.79	1.20	1.07	1.28	1.22	1.43	a								
21	.97	.54	.99	.99	.63	1.09	.96	1.01	.80	.68	1.18	.59	.38	.33	1.40	.13	1.31	.43	.74	.97	a							
22	.89	1.02	1.11	1.11	1.49	.77	.53	.63	1.10	.79	1.03	1.02	.92	1.36	.31	1.32	.50	1.23	1.24	.91	1.30	a						
23	1.14	1.16	1.33	1.33	1.33	1.04	.77	.41	.90	.68	.74	.89	.95	1.28	.64	1.36	.82	1.33	1.42	.67	1.30	.33	a					
24	1.24	1.19	1.44	1.44	1.21	1.16	.88	.26	.74	.58	.54	.77	.91	1.18	.82	1.32	.98	1.33	1.47	.50	1.23	.51	.20	a				
25	.67	.51	.83	.83	.96	.68	.41	.53	.72	.35	.90	.54	.30	.77	.76	.71	.73	.68	.80	.68	.67	.62	.68	.68	a			
26	1.17	1.19	1.38	1.38	1.38	1.07	.80	.44	.94	.71	.76	.92	.98	1.32	.64	1.40	.83	1.38	1.45	.70	1.34	.04	.04	.22	.71	a		

1: 가출, 2: 범죄, 3: 폭력, 4: 음주, 5: 인터넷중독, 6: 정미미·정폭력, 7: 혼인, 8: 미혼모, 9: 교통사고, 10: 카삼사도, 11: 정신질환, 12: 질병, 13: 빈곤, 14: 한부모가정, 15: 소년소녀가장, 16: 가정폭력, 17: 시정입소, 18: 학업중단, 19: 학교폭력가해, 20: 학교폭력피해, 21: 실업, 22: 세력인, 23: 국제결혼자녀, 24: 외국인근로자자녀, 25: 외국인청소년근로자, 26: 한민족